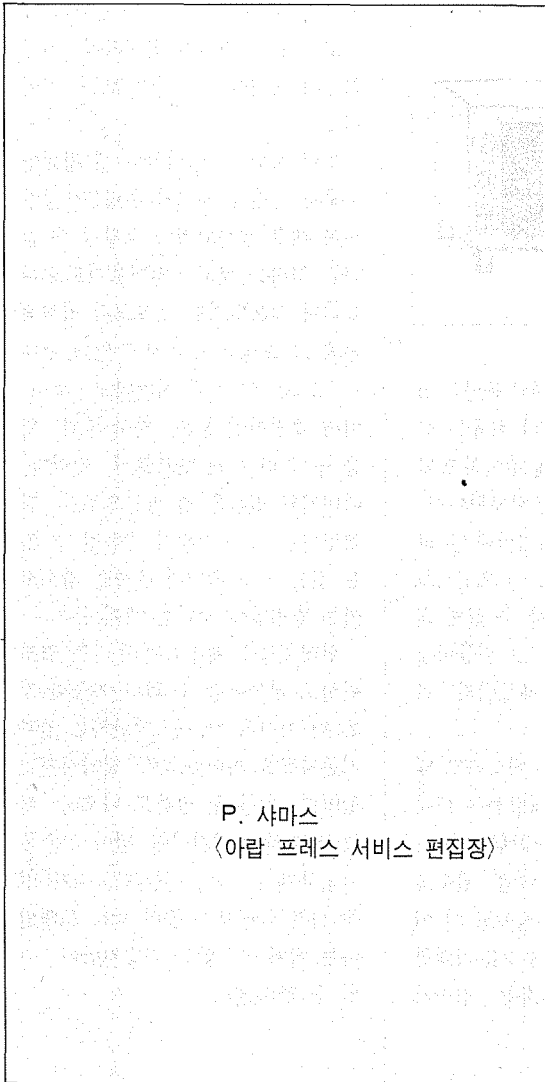


# 世界石油産業의 구조변화와 전망



P. 사마스  
〈아랍 프레스 서비스 편집장〉

## 1. 石油産業의 변천과정

石油産業의 효시는 1800年代부터 비롯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1973년의 제 1 차 석유위기 이후부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약30 년간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에 있어 第 1 期은 1973~1982년, 第 2 期은 1983~1991년, 第 3 期은 1992~2005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第 1 期에서는 石油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했다. 이 시기에는 공급자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고객에게 石油를 판매할 수 있었으며, 구매자측은 石油를 확보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도甘受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第 1 期에서는 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반면에, 第 2 期에서는 수요의 확보 및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第 1 期와는 반대로 고객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第 3 期이 되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각 요소간에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부시장에서는 石油가 최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시기가 될지도 모른다. 즉, 第 3 期에서는 美國시장에서 石油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시장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太平洋圈에서는 石油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第 1 期에 있어서는 石油가 정치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中東내부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으나, 현재는 中東정세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세계의 石油産業이 今後 수요측면에서 어

렇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오는 1991년까지 石油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石油産業의 역사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시기로서 1년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격이 25% 이상, 때로는 50%나 변동되는 사태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휘발유수요는 美國, 西獨등에서 증가되고 있으며 原油가격은 1987년 상반기에 평균 10\$/B, 하반기에 17\$/B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은 등락이 심해서 예측이 어려운 시기로서 상반기는 8\$/B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하반기에는 18\$/B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차츰 안정되고 1992년에는 第3期の 예측이 상당한 透明度를 갖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 石油市場의 主役

현재의 石油정세를 概觀하면, 石油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主役이 있다.

### (1) 메이저

메이저는 현재 各社마다 대폭적인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안에 호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메이저는 자본이 풍부한 그룹과 餘他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자금을 충분히 流動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油價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後者は 현재 갖고있는 固定資産을 매각하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으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

### (2) OPEC 및 非OPEC 産油國

石油市場에 있어서 2번째 주역은 OPEC 회원국과 第3世界의 非OPEC 산유국이다. 이들 산유국도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재편성되고 있다. 이 그룹은 풍부한 原油매장량을 보유하는 국가들과 매장량이 빈약한 국가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前者는 자금면에서도 여유가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

가에서는 국내의 경제기반을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감축함으로써 재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後者の 그룹에는 아프리카, 南美,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며, 주요시장과 가까운 산유국들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官僚制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隣接市場의 경제적 동향에 따라 국민경제의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後者그룹 중에서 막대한 債務를 안고있는 국가들은 1988년까지 債務리스크를 깊어지고 있는데, 특히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부터의 借入金에 대해서는 1988년까지 상환을 연기하고 있다.

比喩的으로 말하면, 1988년이라는 자전거에 債務償還의 약속이라는 코끼리가 타고 있는것과 같아서, 1988년까지 코끼리를 지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世界原油가격에 있어서 1988년이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債務産油國은 채무상환을 위해서 보다 대량의 原油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1988년이 油價가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반대로 최악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

### (3) 獨立系 石油會社

제 3의 주역은 獨立系 石油會社이다. 이들은 메이저의 동태를 살핀 다음에 재편성하는 회사도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정책에 맞추어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예컨대 日本에서 볼 수 있는 몇몇 石油會社의 정리와 통합은 日本정부의 정책 및 경제동향에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 IEA 會員國

제 4의 주역은 IEA 회원국이다. IEA 회원국은 1980년 이후 재편성을 추진해 왔으며,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에너지 수급의 균형유지에 노력해 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石油産業의 再편성

今世紀初 이후 石油産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투자자들은 단기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石油産業에 투자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지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의심많은 태도가 일반적이

었으며, 장기적인 투자는 삼가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태도였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동되어야만 그 일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石油産業의 각분야에서 공통적인 경향이이었다.

그러나 투자가 자신은 여러가지 투자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했다고 자기평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計算錯誤로 끝났던 일이 많았다.

第1次 석유험기 이후 第1期 동안은 原油공급의 확보가 가장 중요해짐으로써 原油공급자와의 계약서만 있으면 石油會社는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에서 얼마든지 貸出을 받을 수 있게된 石油會社들은 코스트에 별로 신경을 안쓰고 많은 정유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해 3~5 \$/B의 프리미엄이 지불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供給源의 확보를 위해 非OPEC 諸國의 上流部門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투자의 배경은 北海, 알라스카 등 非OPEC 산유국에 賦存하는 매장량 쪽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非OPEC 산유국 쪽이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더라도 非OPEC 산유국에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判斷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非OPEC 산유국의 上流部門에 대한 투자액은 2천億달러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시 石油수급전망 중에는 自由世界 전체의 石油수요가 1985년까지 7,000 萬 b/d(현재는 5,000萬 b/d)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이 예측에 의하면, 1985년 對OPEC 石油수요는 4,500萬b/d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여러가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탱커 建造費에 3,000億달러, 정유공장확장 등에 1,500 億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下流部門에 있어서 탱커 船腹量은 교역 소요량의 3배에 달하고 정제능력은 수요의 2배가 되었다. 第2期가 시작되자 경제적 諸要因은 第1期에 비해 逆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固定資産의 매각 및 폐기는 上流·下流부문을 합치면 6,000億 달러어치나 된다.

단계적인 예측에 의해 실시했던 투자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셈인데, 메이저들도 1983년까지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1983년 美國 기업가에는 銀行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他企業을 買収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他企業을 매수하지 않으면 반대로 自身이 買収당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편성에 있어서는 上流·下流部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西유럽의 정제능력은 1980년에 2,000 萬b/d였으나, 1985년까지는 1,400萬b/d로 감소되었으며, 저유능력에 있어서도 1980년에 20億 배럴이었던 것이 1985년까지는 14億배럴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石油業界는, 太平洋圈市場의 장래를 위해, 現存의 정제시설을 감소하거나 폐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4. 국제石油市場의 재편성과 日本 精油産業의 장래

第2期인 1983년 이후는 자원보다도 通貨쪽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第1期에서는 通貨에 대한 신뢰감이 缺如되었으나, 현재는 金, 原油, 원료 등에 대한 신뢰감의 결여가 나타나고 있다. 現 사이클에서 최대의 리스크요소로서는 코스트를 들 수 있으며, 操業費가 높은 설비야말로 企業家에게 있어서 함정이 되는 시기인 것이다.

第3期에 있어서는 石油시장이 美國, 西歐, 東歐圈, 太平洋圈의 4개시장으로 분할되며, 페르사灣 산유국들은 太平洋圈의 일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日本의 石油業界는 下流部門이 중심인데, 페르사灣產油國의 上流部門과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2005년까지 美國의 에너지市場에서 차지하는 石油의 비중은 가스, 石炭, 原子力등의 신장으로 인해 25%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美國에 대한 에너지 수송의 대부분이 陸上수송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石油수입은 주로 中南美와 캐나다 등으로부터 하게 되며, 北海등 他지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石油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으며, 1985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石油의 비중은 45%에 지나지 않는데, 2005년에 石油의 비중이 여전히 3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域內 및 아프리카로부터의 공

급량으로 충분해질 것이다. 또한 에너지供給에서 차지하는 가스의 역할도 중요성이 증가되어, 파이프라인에 의해 연간 4,000億m<sup>3</sup>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2005년 시점에 있어서는 美國, 유럽에 대한 石油 및 가스의 수송은 탱커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太平洋지역에서는 상황이 판이해서, 넓은 바다에 둘러싸인 經濟圈에서 탱커, 정제시설 등은 向後 100~150년간 충분히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石油關聯 固定資産은 向後 美國, 유럽에서는 重要性이 減少되지만 太平洋圈에서는 그 必要性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05년까지는 페르시아灣產油國으로부터 歐美제국에 對한 石油 수출은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太平洋시장만이 이를 흡수하는 시장이 된다.

下流部門 중심의 日本 石油産業은 上流部門과의 통합을 시도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灣產油國이 上流部門을 갖고 있기 때문에 日本이 메이저 撤収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太平洋圈에 소규모의 다국적기업을 만드는 일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試算에 의하면, 2000년까지 太平洋圈에서는 日本을 제외해서 2천萬b/d의 정제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日本の 石油産業은 현재 円高에 직면하고 있는데, 장기

적 시야에 입각해서 石油精製品의 장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日本의 石油業界에 있어서 第1期는 혼란과 공급 확보의 시기였으며 第2期는 생존의 시기이고 第3期는 통합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많은 太平洋지역에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있다. 이 지역의 石油수요는 당장 크게 증가되지 않겠지만, 생활양식의 패턴에 따라 1995~2000년까지 상당히 늘어나고 2000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예컨대 日本의 自動車會社가 中共에 자동차공장을 만들어, 2000년까지 中共인구의 10%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다고 想定하더라도 石油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2000년에는 石油輸出國에서 純輸入國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으로 미루어 보아, 域內에서의 資本·設備의 효과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페르시아灣產油國의 장래가 太平洋圈과 連繫되어 있음을 강조했으나 현재 페르시아灣產油國側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向後 이러한 趨勢는 명확해지고 1990년이 되면 페르시아灣產油國은 太平洋圈과의 통합 이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日本, 石油誌 86. 7 월호) □



国内石油産業의 海外弘報誌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6

—大韓石油協會 弘報室—